

출판금고, 양서지원 용자금 인상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는 지난 12월 1일부터 각 출판사에 대하여 양서출판지원금 용자 한도액을 인상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획출판용자는 이전과 동일하고 일반출판용자의 부동산 또는 은행 저금보증담보는 1사당 종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됐다. 약속어음담보와 이자율, 기간은 이전과 동일하다. 또한 단기출판용자(어음할인)는 1사당 종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됐다. 전화문의 732-1434, 1435.

문학과지성사 주식회사로 전환

'문학과지성사'(대표 김병익)는 지난 12월 8일 창립총회를 갖고 주식회사로 출범했다.

발기인은 총 40명으로, 조세희, 오규원, 김치수, 김주연 등의 '문학과지성' 동인이거나 창사 당시 공로가 큰 문인들을 비롯해 채호기, 권성우, 우찬제 등의 '문학과사회' 동인, 황동규, 김혜순, 이청준, 임철우 등의 '문학과지성사' 출신 문인들로 구성됐다. 현재 발기인 대부분은 3백만원 정도씩을 출자했으며 총설립자본은 2억9천만원 선이다.

책주위, 「책사랑모임」 발간

93 책의해 조직위원회는 독서의 생활화 및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책사랑 모임'을 위해 각 기관이나 단체가 선정, 발표했던 도서목록과 책사랑 모임 전국 주소록을 수록한 「책사랑 모임」이란 책자를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10일 교보문고에서의 개막식 장면.

책의해 마감하는 백만권 책잔치

월간 「책」 주최 전국 51개 도시서 다양한 행사

월간 「책」(발행인 이호림, 도서유통협의회 刊)은 지난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51개 도시 110여개 서점에서 책의 해를 성원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93 전국 독자초대 100만권 책잔치'를 열었다.

10일 오후 2시 교보문고에서 개막식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이날부터 전국의 해당 서점에서 일제히 개최된 이 행사는, 「책」이 선정한 좋은 책 120종의 전시·판매를 비롯해 독

후감대회, 행운권추첨, 독서강연회, 저자와의 대화 등 독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마련되었다.

독후감대회는 월간 「책」에서 선정한 120종의 도서 가운데 어린이, 청소년, 대학일반에 따라 구입해 한권을 읽고 오는 1월 15일까지 월간 「책」으로 보내면 된다. 주소는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99-13. 문의전화 313-3501.

도서보급, 도서상품권 수기집 발간

한국도서보급주식회사(대표이사 김현식)는 독서 새물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1일 '책의 날' 기념 도서상품권 수기 공모에 응모했던 글을 모아 단행본 '주는 정성, 받는 기쁨'을 발간했다.

책에 실린 도서상품권 애용자들의 수기는, 독서인구의 확대와 건전한 선물문화의 풍토조성을 위해 91년 4월부터 발행한 도서상품권이 생활속에 어떻게 자리잡아 가는지 보

여준다.

지학사 월간 「독서평설」 창간

지학사(대표 권병일)가 중학생들의 읽기자료와 사고력 배양 프로그램을 주내용으로 하는 「중학독서평설」을 창간했다.

올해 1월에 창간돼 매달 발간되는 이 잡지는 교수, 교사, 독서지도전문가로 구성된 '목인방독서교실'에서 만들며, 창간호에는 '조건문과 그 오류' 등의 글을 실었다.

재미있는 책이야기

한국 전통사회에서 책은 양반을 비롯한 일부 식자층의 전유물이어서, 많은 부수가 인쇄되어 널리 보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조선시대 중기까지만 해도 책은 매매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출판물의 세 주류라 할 수 있는 官板本, 寺刹板, 私家板의 경우도 그 출판의 주체가 각각 관공서, 佛心 깊은 시주, 저자의 자손이나 門人이라는 점이 다를 뿐, 판매가 아니라 배포된다는 점에서는 한결같다. 간혹 책을 받은 이가 사례금을 내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사례이지 매매의 형식은 아니었다.

책이 하나의 상품으로 본격적인 매매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坊刻板'이 선보이게 되는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대부분 木板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방각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만큼 인쇄나 紙質이 많이 떨어지지만 당시로서는 그나마 대중적인 읽을거리들의 목록을 짐작케 해준다는 점에서 독서사회학적 의미가 크다. 金斗鍾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이 방각판들은 첫째 서울이나 지방의 글방에서 연소자들에게 널리 이용되는 「千字文」「童蒙先習」「明心寶鑑」「古文寶寶」「通鑑節要」「小學集注」 등, 둘째 詩나 律의 저작에 필요한 「玉篇」「三韻通考」 등, 셋째 관혼상제의 의식이나 書簡 양식에 필요한 책들, 넷째 간략한 醫方書, 다섯째 「九雲夢」「三國志」「叔香傳」「沈清傳」 등의 소설류로 대별된다. 말하

자면, 초보적인 교육과 실용적 목적, 그리고 오락에서도 이제 책이 대중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상품으로서의 책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제조건은 서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서점이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中宗 14년(1519)에 중국의 예를 본따 우리나라에도 서점(書肆)을 설치하라는 왕명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나 그 뒤에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발전해나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방각본 이전의 책의 매매는 서점보다는 오늘날의 외판사와 같은 거간꾼들에 의해 이루어졌을 확률이 크다. 실학자 朴齊家가 그의 「北學議」에서 중국에선 서점에서 분주하게 책이 매매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책장수가 책 한권을 가지고 두어달씩이나 사대부집을 두루 돌아다녀도 제대로 팔리지 않는 형편이 아닌가"라고 한탄한 데서도 그같은 사정은 확인된다.

방각본 시대의 책의 매매 형태에 관해서는 19세기 말엽 우리나라에 외교관으로 체류했던 프랑스인 모리스 쿠랑의 「韓國書誌」가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 그에 따르면 장바닥 같은 데 차일로 가린 조그만 진열대에서 "생삼베 옷을 입고 머리를 등 뒤로 길게 땅아 늘인 총각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서 동곳, 마건, 손거울, 찜지와 담배, 너절한 담뱃대, 온갖 상자, 일제 성냥, 붓, 먹, 종이, 책 등을 팔고 있다".

전화 한 통화가 뜻밖의 결과를 만든다?

“출판을 하시려고 합니까? 좋은 원고는 있는데 책으로 출간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책으로 엮을 만한 삶의 경험이나 자료는 있는데 집필을 하실 수 없어 망설이시는 않으십니까? 더욱이 문화적으로는 이 땅에 꼭 필요한 도서가 될 터인데 요즘 같은 출판불황 속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출판하겠다는 곳을 만나지 못했거나, 그렇다고 직접 출판을 하거나 예상되는 시간과 경비의 손실을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는 저희와 상담해 주십시오. 기획에서부터 제작 영업에 이르기까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직접출판의 효용성을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화가 뜻밖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탁전문출판사 **출판미디어**
TEL: (02)730-2516, FAX: (02) 738-2836

출판소재를 찾습니다

20년 동안 꾸준히 양서를 출판해 온 곳입니다. 저희 도서출판 청조사에서는 기성작가 및 신인작가의 원고를 찾고 있습니다. 대하소설, 장편소설, 번역물, 논픽션 등 장르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또한 마감기한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도착된 원고는 저희 기획팀에서 성의껏 검토한 후 출간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낼곳·서울성북구안암동4가 41-3
도서출판 청조사 기획실
전화(922)3931~5/팩시밀리(926)7264

성즈사

出版企劃翻譯

(중국도서기획 번역전문)
《全分野 · 全種別》

한중출판정보학회

· 新著原書 · 뉴프로젝트 多量保有
代表 黃秉國
(前 숙대교수 · 출판사 기획실장 · 중국학 전공)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0단지 31동앞
전화: 645-7052